

# 국가폭력 피해자 공동체 복귀·소통 위한 치유센터 돼야

광주민주포럼...광주에 들어 설 '국립 트라우마센터 방향성 논의'

기존 트라우마센터 기능 단순 확대 그쳐 전반적 검토 필요  
업무·치유공간·치료 부대시설 중요...탈기관화 추구해야

광주에 들어설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단순 상담센터가 아닌 피해자들의 공동체 복귀와 사회적 소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건립이 진행중인 트라우마센터는 기존 광주 트라우마센터의 기능을 단순히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5·18기념재단이 개최한 '2021 광주민주포럼'(5월17일~18일)의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섹션에서 광주에 들어설 국립 트라우마센터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광주민주포럼은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Global) 민주주의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5개의 소주제, 28개의 세션별 국제토론이 이어진다.

이날 총 8개의 섹션의 발제와 토론으로는 ▲동남아시아 민주화운동과 한국의 역할 ▲아시아 민주주의와 선거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미얀마 민주화운동과 국제연대 ▲아시아 민주주의와 SDGs 등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섹션에서는 국내외 석학들이 광주 트라우마센터의 활동과 국립 트라우마센터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치유의 공간과 새로운 공동체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첫 번째 발제를 통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광주 문제 해결 5원칙'(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배상, 명예회복, 기념사업 등)이 비교적 잘 실현된 경우"라면서 "정의도 실현되고 배상·보상도 실시돼 피해도 복구되고 피해자들의 한도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피해자 상당수에게는 죽음이 어른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와 관련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가도 시민사회도, 심지어 피해자 자신들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건립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 기존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을 조금 확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립 트라우마센터의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공간구성을 제안했다. 업무공간도 크게 일반 사무공간과 연구업무 공간이 필요하고, 회원공간·치유공간 및 치료의 접근성과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부대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현정 충북대 심리학과 교수도 '국가폭력 생존자의 회복 촉진 환경'이라는 발표에서 다른 국가의 트라우마 센터의 사례를 들어 국립 트라우마센터의 환경을 제시했다.

그는 센터의 보안과 개방성 사이의 균형유지가 중요하며, 탈기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체의 조화가 구축되어야 하며, 센터를 찾는 피해자들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하고 있는 덴마크 고문반대연구소 '디그니티' 재할 클리닉을 총괄하는 마리토거슨 정신의학과 박사는 '39년 동안 고문 및 조직범죄 생존자 치유'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마리토거슨 박사는 "디그니티는 환경을 통해 피해자들의 회복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치유과정 중에 생존자들이 사회적 관계를 보다 적극적 맺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치유 공간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 그는 "트라우마센터는 자연 속에서 진행되는 그룹 치료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이 증명됐다"면서 "치료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지역 내 공원·정원 등 자연공간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박승희 열사 30주기 추모 문화제 19일 오후 광주시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고(故) 박승희 열사 30주기 추모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박 열사는 전남대 2학년 재학 중이던 1991년 4월 29일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백골단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린 전남대 5·18 광장에서 "노태우 정권 타도하고 미국놈들 몰아내자, 2만 학우 단결하라"를 외치며 분신한 뒤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코로나 종식되고 부처님 자비·광명 온누리에

광주·전남 주요 사찰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봉행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요식이 19일 오전 광주·전남 주요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사찰을 찾은 불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코로나19가 하루 속히 종식되고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이날 광주 무각사에서는 코로나로 예년보다 다소 조촐한 규모의 봉축법요식이 거행됐다. 반야심경 봉독을 비롯해 대법당 앞 마당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를 담은 관불의식 등이

치러졌다. 그러나 공양물을 부처님 앞에 올리는 '육법공양'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생략됐다.

광주 중심사에서도 코로나19 국민극복과 치유를 염원하는 봉축법요식이 열렸다. 이날 오전에만 중심사를 다녀간 신도는 1100여명이었다.

중현 주지스님은 봉축사에서 "천상천하유아독존, 이 세상에서 나 홀로 존귀함은 곧 오직 나만이 있다는 뜻"이라며 "너와 나, 인간과 자연, 생명과 무생명, 부자와 빈자, 남자와 여자로 각각 흩어져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가 한 몸"이

라고 말했다.

또한 "기분을 지키고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온 우주가 한 몸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길"이라며 "우리 모두는 하나임을 깊이 자각할 때 공감하는 마음, 함께 슬퍼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해남 대흥사를 비롯해 장성 백양사,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등 전남의 다른 사찰에서도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는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착한 임대인' 최대 200만원 세금 감면

광주 북구, 임대료 3개월 이상·10% 이상 인하 대상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제269회 북구 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 받았다. 이에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인소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소한 건물주(임대인)를 지원해 소상공인(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71건, 2000여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올해는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감면대상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율이 10% 이상인 임대인이다.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로 환산한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10% 이상이면 감면 대상이다. 임대료 인하율의 75%, 최대 200만 원까지 건축물본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북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음악과 교감하는 가족애 달 '브런치 힐링 버스킹'

광주 서구 20~26일

광주시 서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0~26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무지구 평화공원에서 가족, 스승, 친구, 연인 등에게 '응원과 사랑의 손편지'를 써서 보내기 이벤트를 함께 '브런치 힐링 버스킹' 거리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20일, 7080 통기타 ▲21일, 재즈 ▲24일, 대중가요 ▲25일, 퓨전국악 ▲26일, 클래식 공연 등으로 약 한시간 가량 매일 다른 장르의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주민들에게 선사한다.

이와 함께 '서구 가족 응원해' 이벤트를 실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 스승, 친구 등 소중

한 사람들에게 응원과 사랑의 손편지 엮서를 보인다. 참여 방법은 공연장에 배치된 엮서에 메시지를 작성해 우편함에 넣으면 되고, 엮서는 공연이 끝난 뒤 발송될 예정이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가족들을 위해 서구청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병행하여 버스킹의 다양한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가족에게 고마움과 사랑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자 '서구 가족 응원해'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이번 '브런치 힐링 버스킹'을 통해 가족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신축 착공기념

# 경품 대전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정기예금(100억한도)**

12개월 **1.85%**  
18개월 **1.95%**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2020년 출자금**

**3.0%** 배당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총장지점 223-7217**